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의 몸 인식 사례 연구*

신주영** · 정연수***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IV. 논의

V.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우리는 매일 자신의 몸을 보고, 느끼고, 생각한다. 몸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몸을 바라보는 관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¹⁾ 과거 관점의 몸은 자연적인 것,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 왔으며, 몸은 정신을 보좌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²⁾ 현 시대의 몸은 대중매체를 통해 ‘얼짱’과 더불어 ‘몸짱’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몸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몸에 대한 관심이 왜 이렇게 급증하는 것일까? 몸에 대한 인식이 사회구조의 변화와 과학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몸을 성형하여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라 하였다.³⁾

예고를 졸업하고 대학진학 후 교생으로 다시 모교에 가니 학창시절 나의 모습들이 떠올랐다. 매일 반복되는 연습과 대학진학, 그리고 체중조절, 나의 학창 시절과 달라진 것은 없었다. 지금도 학생들은 뚱뚱해서, 키가 작아서, 얼굴이 예쁘지 않아서 춤을 추는 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은 계속 되고 있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몸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었고, 지금의 학생들 역시 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되면서 ‘무용하는 몸’을 만드는 과정이 분명 존재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전공 고등학생의 몸을 낯설게 관찰하게 되었고 몸에 대한 초점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2009년 5월 연구일지)

* 이 논문은 2010년 신주영의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을 수정·보완 재구성하였음.

** 주저자, 고려대학교 박사수료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박사, 경희대학교 강사, udanza@nate.com

1) 이나현(2012), 윌리엄 포사이드의 몸에 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35(2), p.105.

2) 이학준(2003), 몸의 지위, 『한국체육철학회지』 11(1), pp.126-127.

3) 천선영(2003), ‘몸’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몸에 대한 의과학적 지식의 독점권과 권력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1, pp.186-190.

몸을 통한 의식작용을 하는 철학자인 메를로-퐁티(Merleau-Ponty)는 몸을 체험과 경험의 세계로 포함시켰고, 몸을 ‘물리적이 몸’이 아닌 ‘체화된 몸’으로 바라보았다.⁴⁾ 김미숙(2006)은 몸의 체험을 통해 몸은 가변적이고 유기적인 형태로서 변화를 한다고 하였다. 이때 몸은 다양한 실존을 만들고 새로운 표현을 하게 된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몸에 대한 인식이 ‘불변적 존재’에서 ‘가변적 존재’로 바뀌고, 젠더(gender)적 관점에서 억압과 길들임의 대상에서 해방의 대상으로 바뀌었다고 제시하였다.⁵⁾

Geertz(1973)는 몸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사상을 이야기하고, 다양한 풍습 속에서 문화를 창조하고, 전달하고, 발전시키는 형태의 활동으로 보았다.⁶⁾ 이러한 이유로 무용은 몸을 통해 문화적 활동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적 활동으로의 무용은 몸으로 생각을 표현하는 ‘시각적인 언어’라고 하였다.⁷⁾ 또한 인간의 몸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미적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를 길러준다고 하였다.⁸⁾ 무용은 미적신체 활동과 경험을 통해 창의성을 키워주며,⁹⁾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다양성을 길러준다. 무용은 사람에게 잠재된 감각을 일깨워 주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지평을 확장해 준다. 송수남(1983), 남경이(1997)는 무용을 통해 움직임의 즐거움과 창조적인 잠재력을 자극하여 감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다고 제시하였다.¹⁰⁾ 이렇듯 무용에서의 표현은 그 자체로써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몸에 대한 선행연구는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몸,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몸, 몸 인식의 변화 등이 있었다.¹¹⁾ 이 밖에 몸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에 대한 연구와¹²⁾ 철학적 관점에서의 몸에 대한 연구 등이 선행되었다.¹³⁾ 이병승(2000)은 교육학적으로 몸 담론을 이해하고 있었으며,¹⁴⁾ 이광호(2008)는 몸 인식에 관한 계보학적 고찰에서 몸 인식 전개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몸의 역할을 근원하고 있었으며,¹⁵⁾ 서구사상의 지배적 주류를 형성해 왔던 정신주의적 몸에 대한 담론을 넘어 체험으로써의 몸에 대해 탐구하였다.¹⁶⁾ 이 밖에 직업 무용수의 외모와 이미지분석 연구, 몸 인식과 표현에 대한 연구, 무용전공 학생들의 체중조절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¹⁷⁾

지금 까지 국내 무용학과 체육학에서 몸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몸

4) 이광호(2008), 몸 인식에 관한 계보학적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47(4), p.46.
 5) 김미숙(2006), 인지학적 관점에서의 몸 탐구,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4(4), p.298.
 6) Geertz, C(1973), 『문화의 해석』, 홍익표(역), 서울: 김영사, 1998.
 7) 박미향(2006), 무용수의 몸에 대한 의식 및 표현,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8) 유진, 김장우(2004), 프로한국무용수의 신명경험,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5(1), p.97.
 9) 심혜경(2004), 아동의 창의적 내적 표출을 위한 전통춤, 『한국체육철학회지』 12(1), p.469.
 10) 송수남(1983), 『무용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연사.
 남경이(1997), 무용 교육을 통한 사회성의 가치 확립에 관한 연구, 한양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이경(2013), 무용전문인력 재교육에 관한 고찰, 『무용예술학연구』 43(4), p.32.
 11) 송형석(2003), 왜 몸인가?, 『한국체육학회지』 42(3), pp.65-66.
 12) 이정학, 신현군(2008), 현대 사회에서의 몸의 지위, 『한국체육철학회지』 16(4), pp.305-318.
 13) 정대현(2000), 몸과 마음으로 생각한다, 『철학』 6(4), pp.191-207.
 이병승 (2000), 몸에 관한 철학적 담론과 그 교육학적 시사, 『교육철학』 18, pp.227-251.
 배소심, 최경실(2005), 몸의 현상학을 통한 춤 예술의 존재론적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4(6), pp.1059-1069.
 14) 이병승 (2000), 몸에 관한 철학적 담론과 그 교육학적 시사, 『교육철학』 18, pp.227-251.
 15) 이광호(2008), 몸 인식에 관한 계보학적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47(4), pp.39-49.
 16) 노양진(2004), 몸의 철학적 담론:몸과 마음의 이원론을 넘어서, 『철학연구』 27, pp.31-58.
 17) 강여주(2007), 직업무용수의 신체이미지 분석, 『한국철학회지』 15(3), pp.253-271.
 이진희, 이창섭, 남상우, 여정권(2009), 무용수의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 적 가치내재화가 대상화된 신체의식, 사회적 체형불안 및 섭식장애 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8(1), pp.81-91.
 권옥동, 박미향(2007), 직업 무용수의 몸 인식, 『한국체육학회지』 46(1), pp.69-78.
 이소현(2004), 무용에서의 신체 미적 체험: 현상학적 이해, 『체육철학회지』 12(1), pp.359-380.
 최경실(2006), 춤 표현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한국무용학회지』 9(2), p.11.

에 대한 관심은 확대되고 있지만 관심의 크기만큼 교육 현장에서의 몸 교육은 다양하지 않은 실정이다.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보다 입시를 목적으로 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신체표현 활동이 아름답다고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다.¹⁸⁾ 그렇다면 긴 다리, 작은 얼굴, 마른 몸으로 표현되어지는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미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눈 높이를 맞추고 무용교육의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무용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과연 자신의 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몸 인식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면 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무용교육 방향에 기초가 될 수 있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무용전공 학생들의 몸 인식 과정을 기술하고 해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의 몸 인식 과정을 이해하고, 교육적 의미를 논의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첫째,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이 몸을 인식하게 되는 과정은 무엇인가? 둘째,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이 몸을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의 몸에 대한 인식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학생들의 이해와 더불어 연구 참여자의 생활세계를 구체적으로 발견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 관찰하고, 이야기하며 기록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통하여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의 몸 인식 과정에 따른 경험을 분석, 해석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조용환(1999)은 질적 연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연구 집단에 대한 애정과 연구 참여자가 현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¹⁹⁾ 또한 연구 참여자 선정시 연구자에게 지식, 가치, 기술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 참여자의 자기문화를 이야기해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⁰⁾ 질적 연구에서 심층면담을 한다는 것은 연구 참여자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간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역시 연구 수행과정에서 연구를 함께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연구대상이라 하지 않고 참여자라고 한다. 이렇게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되돌아봄의 경험은 연구 참여자 역시 자신의 삶을 성찰 할

18) 하혜석(2010), 마리 뷔그만의 표현주의가 현대 무용교육에 미친 영향, 『한국체육철학회지』 18(2), p.247.

박중길(2007), 인문학적 무용교육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능력, 『한국예술교육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2007(1), p.24.

19) 조용환(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20) 조용환(2008), 질적연구 원리와 기법, 『2008년도 2회 한국무용학회 연차 학술대회 자료집』, p.28.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참여자는 연구자가 교생실습을 하는 교수자로서 참여관찰을 하였고, 유목적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활용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 학생들 중 무용 전공 선생과의 대화로 학생 중 체중조절 경험이 있으면서 연구자가 교생실습 기간 중 조화로운 관계(rapport)형성이 잘 되어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는 본인의 체험 세계를 소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참여자 선정 후에는 연구의 목적과 사용범위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참여자와 담당 교사의 동의 후 연구를 실행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이해

연구 참여자	키(cm)	몸무게(kg)	연구 참여자 이해
봄이	165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고에 들어와서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 스트레스가 심했음 • 고3이 되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춤추는 것이 즐거워짐 •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
여름이	157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1 어려서부터 무용을 시작했지만 흥미를 잃고 있음 •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이 많음
가을이	163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1 예고에 들어오기 위해서 부모님의 권유로 무용을 시작하였음 •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이 많음

2.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위해 반성과 새로운 의견, 아이디어, 해석 등을 연구 일지에 작성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 수집은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 주제와 문제가 수립된 이후부터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해석적 순환 과정에 의해 진행되었다.

가. 참여관찰

참여 관찰은 제안한 기술적 관찰(descriptive observation), 집중관찰(focused observation), 선택적 관찰(selective observation)을 하였다.²¹⁾ 본 연구는 2009년 4월~5월, 6월~10월 연구자의 교생 실습기간 중 서울에 소재한 우리 예술 고등학교²²⁾ 한국무용 전공 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2009년 4월부터 본격적인 연구 계획을 구성해 나갔다. 연구 활동에 필요한 문서 자료인 선행연구 리뷰와 다양한 몸에 관한 이론서를 탐독하였다. 참여관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교생실습을 함께 한 동료와 무용 수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전공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참여관찰 시기는 교생실습 기간 중에 이루어 졌다.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을 깊이 있게 관찰 할 수 있었으며, 참여 관찰을 통해 연구 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였고, 상황 맥락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분석과 해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관찰이 끝난 직후 자기반성적 견지의 연구 일지를 작성하였다.

21) Spradly, J.(1980), 『질적 사례연구법』, 허미와(역), 서울: 양서원, 1997.

22) 참여관찰학교의 보호를 위해 가칭 우리 예술 고등학교로 사용.

나. 면담

면담은 연구 참여자 하나의 상황이나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다.²³⁾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해 발견되어진 독특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구성은 면담 초기에 학생들의 무용 입문부터 시작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 학생들의 무용경험과 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1, 2차면담 내용을 분석한 후 분석내용을 가지고 이후의 면담을 진행해 나갔다.

연구자는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의 몸 인식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5회 이상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내용의 분위기와 감정을 살려 내용을 해석 할 수 있도록 면담의 전 내용을 mp3녹음기로 녹음, 전사한 자료를 가지고 분류, 해석하였다.

3. 연구절차

고등학교 무용 전공학생들의 몸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절차 과정

단 계	기 간	주요활동	방 법	비 고
연구 계획	2009.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주제 및 문제 선정 • 선행연구 및 문헌 자료 분석 • 연구 방법선정 • 연구 참여자 선정 • 수업관찰(교생실습) • 1차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계획서작성 및 문헌자료 수집 	
자료 수집	2009.7.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관찰 • 심층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정리 • 면담내용전사
	2009.10.1~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내용전사
1차 자료 분석	2009.10.20~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분석 • 연구 참여자 및 전문가, 동료 간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각 검증 • 구성 원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진실성 검토
2차 자료 분석	2014.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분석 • 연구 참여자 및 전문가, 동료 간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각 검증 • 구성 원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진실성 검토
보고서 작성	2014.11~201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보고서 작성 		

4. 자료의 분석과 해석

김영천(2006)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질적 자료의 분석은 반성적이고 예술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²⁴⁾ 연구자는 수집된 면담 내용을 전

23) Stainback, S. and Stainback, W.(1988), *Understanding &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Reston, VA: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24)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사한 후 기록된 자료가 녹취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 및 분석의 전 과정에서 연구의 진실성 및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원 간 검토(연구 참여자와 함께 면담한 내용을 확인), 동료 간 협의(자료수집과 분석, 해석의 순환 과정에서 협의 를 통해 연구의 진실성 확보), 다각검증(면담, 관찰, 문헌 분석을 박사1명과 지도교수1명이 의미를 분석) 을 하였다.²⁵⁾

수집된 정보와 도출된 결과는 연구 참여자와 무용교육 현장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박사1명과 질적 연구 논문 수행경험이 많은 지도교수 1명과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상황맥락과 의미가 상충하는 내용은 연구 참여자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였다. 해석한 내용은 수집된 자료 와 비교하여 여러 차례 정독하고 검토하면서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질적 연구 특성상 참여 관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그 범위 또한 우리 예술 고등학교 무용전공 여학생들로 연구 참여자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술 고등학교의 특성상 한국무용전공자들로 연구 참여자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III. 결 과

1. 타자에 의한 몸

무용은 몸을 주체로 남들에게 자신의 느낌과 생각들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이는 어떠한 예술보다 몸 이 두드러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의 몸은 3년 이라는 시 간동안 수업과 예술 발표회 상황에서 교사와 주위 친구들에게 노출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와 무용 을 전공하는 친구들의 말과 행동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를 토대로 몸 인식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가. “선생님이 몸무게 재신데요”

무용전공자들은 타자에게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맥락이 많기 때문에 체중조절에 각별한 신경을 쓴다는 것은 연구자 또한 오래 전 학창시절에 경험했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교사 역시 무용전공 학생들 의 체중조절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다.

무용반은 4교시 이후에 실기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점심시간 전에 종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생실습 일정이 끝나고 부랴부랴 교실로 올라갔다. 종례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점심 맛있게 먹어 오늘 메뉴 생선가스더라”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아이들은 “저희는 못 먹어요, 이따가 전공 선생님 이 몸무게 재신데요” (2009.5.20 연구일지)

이렇게 연구자의 교생일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에서는 무용교사들이 무용전공 학생들의 체중조 절에 대해 깊이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의 중고등학교 무용교

25) Lincoln, Y. S. and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육이 입시에 초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반증이다.

선생님들께서 되게 심한 말은 하실 때가 있잖아요. 뭐……. 무용 수업시간에 하는 말씀이나 되게 상 처받는 말이나 잠깐 스트레스로 고등학생이라서 잠깐 살이 찌 수가 있는데 너무~ 너무~스트레스 를 주시니까 내가 살 좀 찼다고 무용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이러면서까지 내가 무용을 왜 끝까지 하려고 하나 후회스러운 것도 살짝 있었고 선생님이 계속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주고 심한 말하고 그러면은 내가 왜! 무용하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평소에 있는 것 같다가 그러시면 내가 왜! 지금 이 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무용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때도있어요…… (2009.7.22. 봄이)

안 그래도 살찌서 민망한데 선생님이 계속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막 이런 게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예요 부채 산조 랑 다하는데~ 애들은 다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선생님도 좀 당황해하시고. 흐 흐……. 오늘만 울어 막 이러시고 (2009.7.24. 봄이)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은 무용교사의 체중조절 관리에 대해 심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생들은 체중에 대해 무용교사의 반복적인 지적에 ‘심한 말’이라고 표현하였고,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춤을 추는 것이 먼저인지 체중조절을 해서 선생님이 원하는 몸을 만드는 것이 중요 한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교사의 체중조절 관리로 인하여 자신이 좋아 했던 춤을 왜 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연구자도 어린 시절 대학진학을 위해서는 체중조절이 필요하다고 교육 받았다. 이와 같은 예에서도 무용교사의 체중조절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과 교사의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고 싶음을 알 수 있었다. 고 등학교 무용전공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무용에서의 부상은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만 무용수업 시 간에 체중조절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 무용을 한다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하였다.

나. “똥똥해서 마이너스래요”

우리예술 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교과 과정 안에 전문교과 수업이 포 함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평가는 매 학기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각각 1회씩 연간 4회 실시 한다. 전문교과 평가는 각 전문교과 담당 교사들이 성적관리 규정에 의해 합리적인 세부규정을 정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 실시한다.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무용전공학생들의 몸 인식 과 정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등학교 무용 전공학생들의 학교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느끼는 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다. 관찰과 면담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중간고사 시험을 보았고 결과도 곧바로 나오는 과정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연구의 참여자중 1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실기 점수를 처음 접했을 때 많이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저는 그때……. 처음에 봤을 때 거꾸로 점수를 뒤로 돌아가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그래서 솔직히 살이 찌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심한 거예요. 점수가 진짜 아니게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진짜 예쁜 애가 있어요. 계가 이제 무용을 별로

안 했네요. 제는 진짜 점수가다. 10위권 안인 거예요……. 진짜 예쁜 게 좋기는 좋구나……. 그니까 저의 걸모습이랑 제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나가는 거니까 말라서 더 잘해야 하는데……. 똥똥 한테다가 똥똥하면 동작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더 마이너스 되니까, 그리고 다 같이 똥똥하면 상관없는데 저만 그런 거잖아요 시험을 3명에서 보는데 다 마르고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키는 작는데 말랐어요, 저는 그사이에서 하거든요 그 사이에 낀 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니까 그런 점이 더 마이너스기 된 것 같아요 (2009.9.7 여름이)

여름이는 무용전공 실기시험을 보기 전부터 자신의 신체조건 때문에 전공교과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점수가 나온 후 친구들과의 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신보다 춤을 못 추지만 자신보다 예쁜 친구가 상위권 점수가 나온 것을 확인한 후 전공실기의 평가에서 신체 조건이 점수를 좌우한다고 하였다.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은 전공교과 시험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평가된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전공실기를 평가하는 무용교사가 모든 학년의 전공수업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평가 대상 학생들을 처음 보는 무용교사는 학생들의 걸모습을 우선적으로 보고 평가되어지는 것이다. 둘째, 시험을 같이 보는 친구들과의 신체 조건의 차이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여름이는 자신과 같이 시험을 보는 2명의 친구들이 모두 자신보다 마르고 신체 조건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보다 신체 조건이 떨어지는 자신과 비교되어 자신이 더 똥똥하고 민첩하게 보이지 않아 전공 교과 점수가 잘나오지 않는다고 이해하였다. 이처럼 전공교과 평가에서의 신체 조건은 평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고등학교 무용 전공 학생들은 이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 “친구야 나랑 몸 바꿀래?”

무용전공 학생들은 자신의 동료들과 경쟁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체중조절을 할 때에도 자신의 몸과 동료의 몸을 비교하고 부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애들 무용하는 거 보면 재는 ‘진짜 몸이 예쁘다’ 이렇게 생각도 해 보고 재는 진짜 무용하면서 자기도 기분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몸이 마르고 너무 예쁘는데, 애가 설렁설렁하면 재는 몸도 예쁘는데 뭐가 문제일까? 그런 생각도 하고……. (2009.9.5 여름이)

고등학교 무용 전공 학생들이 생각하는 몸의 정석은 무엇일까? 이것은 무용교사가 수업시간에 이야기하고 보이는 움직임의 의미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이 수업 상황 안에서 같은 동작을 배우지만 나보다 더 빨리 이해하고 표현하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불안과 부러움의 정서로 나타났다.

애들 끼리랑 몸매 비교 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이 진짜 하나하나 몸이 다 틀려요……. 진짜 가지각색 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막 제가 너무 부러운 거 있잖아요 내가 재였으면 막 거울을 통해서 재 한번 보고 나 보면 완전 내가 이렇게 아무리 살 빼고 이래도 너는 키가 작으니까 뭐~흐흐흐 이라고, 너는 키가 크니까 무용단 들어가도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다리는 얇은데……. 배가 좀 나왔어 좀 이런 거 너는 뼈 자체는 얇은데……. 살이 좀 많아 이런 거 그런 이야기되게 많이 해요 만약에 뼈대가 워낙 두꺼운 애들은 안 얇아 보이는 거 있잖아요 원래 뼈는 좀 얇은 데 거기 살이 좀 붙어 있는 애들은 살만 조금 빼면 예뻐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

면 너는 뼈가 얇아서 조금만 살 빼면 예쁘잖아~이러면 아니야~그러면 나랑 몸 바꿀래? 어…….
바꾸자 (2009.9.1 봄이)

연구 참여 학생들은 친구와 자신의 몸을 비교하며 예쁜 몸과 그렇지 않은 몸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첫째, 무용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예쁜 것이란 걸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움직임의 행위를 할 때 느껴지는 무용수로서의 예쁨을 의미한다. 둘째, 학생들은 자신의 몸과 친구들의 몸을 서로 비교했는데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굉장히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의 전체적인 모습을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신체를 나누어서 비교한다. 봄이가 면담에서 이야기했듯이 “너는 다리는 얇은데 배가 좀 나왔어.”, “너는 뼈 자체는 얇은데 살이 좀 많아.”와 같은 이야기로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체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친구의 신체 한 부분과 바꾸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몸을 인식할 때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인식의 과정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용 전공하는 학생들은 ‘친구의 몸을 부럽게 바라보기’, ‘나와 친구의 몸 비교하기’와 같은 몸 인식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 주체적인 몸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이 자신의 몸 인식을 할 때 교사의 교수방법에 의해서 자신의 몸 인식을 하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 자신과 친구와의 몸을 비교 하는 과정에서 몸 인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타자로부터 인식되어지는 몸’을 앞 절에서 살펴보았다면 몸을 주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겠다.

가. “똥똥해도 춤 출 수 있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똥똥하고 그런 사람은 왜 무대에 설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똥똥해도 자기가 똥똥 한 거 표현하면 되지!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마른 사람만 무대에 서야 되지? (2009.8.29 봄이)

무용은 몸으로 생각하고 느끼며 삶까지도 표현 할 수 있다. 봄이의 몸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은 꼭 마른 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춤은 남에게 보이는 예술이기 때문에 보편적이면서 공감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아름다움의 기준이 마른 체형으로 고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은 춤을 추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표현 방식을 발견해 나갔다. 무용 수업상황에서 자신의 몸 찾기를 하려고 시도하였다.

나. “무대에서 춤추고 싶어요”

나의 경험으로 무용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무대에서 춤추는 것을 상상하고, 무대에서의 공연을 갈망한다. 또한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무용 전공자들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그 춤에 빠지게 되면 아픔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춤에 빠져서 거기에만 몰입하다가 보면 온몸에서 그런 것 같아요 춤에 자기의 그……. 영혼? ㅎㅎㅎ 정신 이런 것을 담아서 온정신과

자신의 영혼들을 정말 다 빼서 딱 춤에 몰입하는 것 완전히 쏟아 버리는 것. 쓰러지지만 앓을 정도로……. 공연할 때는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김연아처럼……. 그 무대에 설 때는 우아하게 백조처럼. 뭔가가 갖춰지게 나오잖아요. 자기 작품에 몰입해서 남에게 보여 준다는 것은 자기 자신도 설레고 보는 사람도 재미있고 이렇잖아요. 그것을 계속 재미있게. 관객하고 재미있게, 나는 나를 보여 주는 것에 재미있어하고 관객은 내 이야기를 재미있어하고……. 계속하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나의 이런 모습도 보여 주고, 또 다른 모습도 보여 주고, 이렇게 저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 준다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요 (2009.10.14 봄이)

봄이는 몰입의 의미를 몸, 정신, 영혼이 춤에 쏟아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무용에서 몰입의 의미를 설명할 때에는 몸과 정신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춤을 출 때에 겉으로 보이는 자신의 몸을 생각하고 춤을 추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말 춤추고 싶은 욕구를 표현하는 것으로써 몸 자체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용수업 경험을 할 때 겪었던 체중조절과 지도자들이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가는 몸, 마른 몸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자신이 춤에 몰입할 때의 몸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어~아무래도……. 네~달라요. 무대라는 데를 서면 연습실이랑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중략) 막……. 하다가 들어갔을 때는 휴~안도의 한숨. 그런 게 있고요……. 안에서는 기다리고 있다가 나올 때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져요……. 외부로부터의 그런 기운……. 이렇게 커튼에 있다가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앞에서부터의 기운이 막 오는 것 갑자기 행한 기분……. 가려지고 있던 게 벗겨지는 것,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나니까 떨리고 그러는데 하다가 딱 들어가면 누가 나를 가려 주는 거니까. 휴~그런 거 (2009.10.14 여름이)

여름이가 생각하는 무대의 공간은 등퇴장을 할 때 사용하는 커튼 윙 사이로 보이는 공간과 안도의 공간으로 구분했다. 이것은 흔히 공연장을 구분할 때 공연을 보는 관객의 입장 무대와 객석은 다르다. 무용수가 무대에 서서 무대공간의 행위자로서의 다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고등학교 무용 전공 학생들이 무대에서 인식하고 있는 몸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생들에게 무대라는 공간은 표현하는 공간이며 연습실과는 다른 것을 체험하는 공간이었다.

저는 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요 무대에 설 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무대에 서면은 그런 게 너무 재미있고 그래요 …… 거기서 내가 하는 무용을 사란들이 보는 게 너무 좋으니까 기분이 업 되는 거예요 계속 더 하고 싶고. 공연을 몇 번을 뛰라고 해도 땀 수 있는가. 무대 중독……. 무대만 서면 너무 좋아지고 그러는 거 기분이 좋아지고 (2009.10.14 봄이)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더 하려고 하고”, “계속 더 하고 싶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학생들은 불안이라는 상태적 심리상태도 경험하지만 성취감 혹은 쾌감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무용 전공학생들의 공연에서의 느끼는 성취감은 마음에서 느끼는 충동을 몸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느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예술적 기량을 잘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본능적인 무용수의 욕구이다.

다. “무용수의 몸이 되고 싶어요”

그냥 운동으로 해서 다져진 사람들의 몸을 보면 그냥~음~보기 좋네! 그러잖아요. 근데 무용수의 몸에서는 되게 하나하나 그런 기운들이 웬지 몸에 다 나타나는 것처럼 약간 보여요 막. 제가 그걸 왜 느끼냐면요 국립 무용단 발레리나 김주원 있잖아요. 하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뭐라 그려야지? 잡지나 그런 걸 볼 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등 근육이나 발레리나니까 다 보여 주잖아요. 막~되게 너무 달라요.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근육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탄력 있잖아요. 아~탄력 있고 막 건강해 보여 이게 아니고 막~웬지 안타까운 것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발레를 하나하나 했어. 근육 하나하나가 다져져 있는 것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발레리나 강수진을 봐도 막~목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그때 아름답다. 무용하는 사람들은 아름답다.. (2009.8.29 봄이)

봄이는 무용하는 사람의 몸은 운동을 하는 몸과는 다른 몸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무용하는 사람의 몸에서는 안타까움이 느껴지며 근육이 하나하나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봄이가 느끼는 무용수 몸에서의 안타까움과 살아있는 느낌은 무엇일까? 이것은 무용수의 몸 표현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용은 무용수들의 신체 움직임을 통해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때문에 봄이가 말하는 무용수의 몸은 일반 운동을 해서 몸이 다져진 사람과는 다른 몸이 되는 것이다. 또한 무용수는 이러한 몸 표현에 필요한 테크닉들을 구사하기 위해 많은 수많은 반복을 통하여 습득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무용수의 몸은 무용을 하지 않는 사람의 몸과는 구별 된다고 할 수 있다.

무용을 하면서는 하나하나 동작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본적으로 순서도 기억해야 하잖아요. 있는 동작 하나하나에 시선은 어떻게 하고 눈, 손은 어떻게 하고 호흡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2009.9.1 봄이)

무용을 하면서 생각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무용 수업에 몰입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몸의 형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몸의 형태가 일치된 모습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 의

고등학교 무용전공학생들의 몸 인식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전제로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의 사례로써 이야기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는 고등학교 무용전공학생들은 타자 또는 외부로부터 규정되어지는 몸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규정 짓거나 자신의 몸을 타자와 비교 한다. 둘째는 타자로부터 규정되어진 을 무용수의 이상적인 몸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몸과 비교 하고 확인하면서 이상적인 몸을 꿈꾼다. 셋째로는 타자와 자신이 인식하였던 몸을 다시 무대라는 공간에서 타자에게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은 공포와 성취, 몰입을 경험 하게 된다.

www.kci.go.kr

본 연구는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의 몸 인식 과정을 우리 예술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 대상으로 몸 인식의 과정을 발견하고, 해석하며, 교육적 의미를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무용전공 학생들의 몸 인식 과정은 ‘타자에 의한 몸 인식’과 ‘주체적인 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첫째,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의 몸은 타자에 의해 인식되어지는 과정으로 “선생님 몸무게 재신데요”, “똥똥해서 마이너스래요”, “친구야 나랑 몸 바꿀래?”로 분석되었다.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은 학교생활 경험에서 타자와 나와 의 몸을 비교 하는 과정을 통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 타자와 나의 몸 비교를 통해 인식 되어진 자신의 몸을 열등한 몸으로 인식하여 부정적인 자신의 몸 바라보기를 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미셸푸코는 ‘판옵티콘(panopticon)’의 관점으로 인간의 신체는 쏟아지는 감시의 눈과 시선, 혹은 그 가능성은 피지배자의 정신과 신체를 동시에 구속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⁶⁾ 또한 타자의 시선이 개인에게 주체적인 신체를 형성하는 과정이었고, 고등학생의 민감한 정서와 진솔한 표현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둘째, 고등학교 무용 전공 학생들은 “똥똥해도 춤 출 수 있어요”, “무대에서 춤추고 싶어요”, “무용수의 몸이 되고 싶어요”와 같은 표현으로 주체적인 자신의 몸을 인식하는 과정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인식되어진 몸을 인정하고 극복하면서 주체적인 자신의 몸 바라보기 과정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용교육을 통해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은 체득되어진 자신의 몸을 인식하는 과정 안에서 자신의 새로운 몸을 발견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타자의 시선을 주체적인 몸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기도 하였고, 타자와 주체라는 복합적인 몸 인식 과정이 혼합되어 있었다. 이는 학교 무용교육과정과 기존에 행해졌던 규정, 선생들의 선호기준이 학생들의 몸 인식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주체적인 몸 인식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공연을 통해서 구체적인 자신의 몸을 발견함으로써 몸과 무용을 통합적으로 인식하였다. 무대에서는 타자의 시선과 자신의 ‘주체적인 몸’ 발견의 최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생활동안 반복적으로 순환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서 무용예술인이라는 토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무용교육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김정숙(2007)은 의미 없는 움직임이 아닌 춤 동작의 의미를 생각하고 존재 지향적 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였다.²⁷⁾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본 연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몸뿐만 아니라 춤추는 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정도와 그에 따른 무용교육의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몸 인식과정이 무용교육에서 추구하는 무용교육의 과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와 문화 속에서의 무용의 가치를 발견 할 수 있는 가능태로써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V. 제 언

연구자의 소견으로 무용교육이 추구해야 할 몸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몸이 아닌 진정한 아름다운

26) 김정효(2008), 미셸 푸코의 신체관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7(4), p.31.

27) 김정숙(2009), 전통 승무의 정체성과 전통춤 교육의 재구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몸을 표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스러움에 대한 정의를 형식에 얽매어 구속당한 흔적이 없는 것, 선천적으로 꾸밈과 교묘함을 싫어하는 미의식 그리고 가식보다 자연스러운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단순하면서도 공간미가 있는 여백이나 불균형과 균형이 조화를 이룬 것이라 하였다.²⁸⁾ 자연스러운 몸이란 자연스러운 춤이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춤은 몸으로서 표현하는 것이고 몸은 춤으로 표현되어 질 수 있는 운명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무용에서의 자연스러운 몸 표현을 시간이 흐르고 삶이 살아가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했다.²⁹⁾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내면에서 우리나라는 움직임 표현하는 것이며, 억지로 신체를 과장된 표현을 하거나 일부러 동작을 꾸며 내어 형식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몸 표현은 겉으로 보이는 형태가 완전할지라도 그 본질, 내면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무용예술의 궁극적인 가치와 직결 될 수 있다. 기능주의적 표현을 뛰어넘는 무용은 결국 끊임없이 노력하는 예술가의 집념과 추구하고자 하는 철학적 고민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내면이 아름다운 몸이 될 때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타자와 향유 할 수 있는 예술로써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레비나스(Levinas, 1947)는 향유란 자아와 타자가 공동의 정서적, 유대감 속에서 빚어내는 관계를 말하였다.³⁰⁾ 이러한 정서적 유대감을 통해 무용전공 학생들은 무대 공간에서 친구, 관객과 함께 자아와의 일체감을 경험하게 된다. 몸을 통한 움직임의 본질적 요소로써 그 상황에 몰입하는 것이라 하였다.³¹⁾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들이 몰입의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는 몸은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내야 하는 몸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용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 중 아름다움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8) 정병호(2004), 『한국무용의 미학』, 서울: 집문당.

29) 유창경(2009), 한국무용정신 가르치고 배우기: 무용교사의 실천과 전공학생의 인식 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0) 허왕옥(2000), 향유 주체의 대화에 의한 창작 교육 -조선시대의 창작문화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회』 11(1), p.313.

31) 유진, 김장우(2004), 프로한국무용수의 신명경험,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5(1), p.99.

■ 참고문헌

- Geertz, C(1973). 『문화의 해석』. 홍옥표(역). 서울: 김영사. 1998.
- Emmanuel Levinas(1947). 『시간과 타자』. 강영암(역). 서울: 문예출판. 1996.
- Y. S. Lincoln and E. G. Guba(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Spradly, J.(1980). 『질적 사례연구법』. 허미와(역). 서울: 양서원. 1997.
- S. Stainback and W. Stainback(1988). *Understanding &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VA: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강여주(2007). 직업무용수의 신체이미지 분석. 『움직임의 철학: 한국철학회지』, 15(3): 253-271.
- 권옥동, 박미향(2007). 직업 무용수의 몸 인식. 『한국체육학회지』, 46(1): 69-78.
- 권지혜(2005). 무용전공 여고생들의 체중관리 및 비만 스트레스.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경숙(2009). 전통 승무의 정체성과 전통춤 교육의 재구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미숙(2006). 인지학적 관점에서의 몸 탐구.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학회지』, 14(4): 297-309.
-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이경(2013). 무용전문인력 재교육에 관한 고찰. 『무용예술학연구』, 43(4): 21-46.
- 김정효(2008). 미셸 푸코의 신체관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7(4): 25-37.
- 남경이(1997). 무용 교육을 통한 사회성의 가치 확립에 관한 연구. 한양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노양진(2004). 몸의 철학적 담론: 몸과 마음의 이원론을 넘어서. 『철학연구』, 27: 31-58.
- 박미향(2006). 무용수의 몸에 대한 의식 및 표현.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중길(2007). 인문학적 무용교육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능력. 『한국예술교육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2007(1): 23-44.
- 배소심, 최경실(2005). 몸의 현상학을 통한 춤예술의 존재론적 본성. 『한국체육학회지』, 44(6): 1059-1069.
- 송수남(1983). 『무용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연사.
- 송형석(2003). 왜 몸인가? 『한국체육학회지』, 42(3): 63-70.
- 심혜경(2004). 아동의 창의적 내적 표출을 위한 전통춤. 『한국체육학회지』, 12(1): 467-488.
- 안애순(1998). 고등학교 무용수의 Eating Disorder 특성에 관한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7(2): 447-454.
- 유진, 김장우(2004). 프로한국무용수의 신명경험.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5(1): 97-112.
- 유창경(2009). 한국무용정신 가르치고 배우기: 무용교사의 실천과 전공학생의 인식 분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광호(2008). 몸 인식에 관한 계보학적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47(4): 39-49.
- 이나현(2012). 윌리엄 포사이드의 몸에 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35(2): 103-122.
- 이병승 (2000). 몸에 관한 철학적 담론과 그 교육학적 시사. 『교육철학』, 18: 227-251.
- 이소현(2004). 무용에서의 신체 미적 체험: 현상학적 이해. 『움직임의 철학: 체육학회지』, 12(1): 359-380.

- 이정학, 신현군(2008). 현대 사회에서의 몸의 지위. 『한국체육철학회지』, 16(4): 305-318.
- 이진희, 이창섭, 남상우, 여정권(2009). 무용수의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 적 가치내재화가 대상화된 신체의식, 사회적 체형불안 및 섭식장애 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8(1): 81-91.
- 이학준(2003). 몸의 지위.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1(1): 123-137.
- 정대현(2000). 몸과 마음으로 생각한다. 『철학』, 64: 191-207.
- 정병호(2004). 『한국무용의 미학』. 서울: 집문당.
- 조용환(2008). 질적연구의 원리와 기법. 『한국무용학회 연차 학술대회』, 1: 18-37.
- 천선영(2003). ‘몸’ 현재적 의미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몸에 대한 의과학적 지식의 독점권과 권력화를 중심으로. 11: 185-211.
- 최경실(2006). 춤 표현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한국무용학회지』, 9(2): 9-21.
- 하혜석(2010). 마리 뷔그만의 표현주의가 현대 무용교육에 미친영향.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8(2): 245-257.
- 허왕욱(2000). 향유 주체의 대화에 의한 창작 교육-조선시대의 창작문화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회』, 11(1): 313.

논문투고일 2015. 04. 06

심사일 2015. 04. 07

심사완료일 2015. 04. 13

A Case Study for Recognition of the Body of Highschool Students Majoring in Dance

Shin, Joo Young* · **Chung, Yeun Soo****

Ph.D Student ,Korea University*

Lecturer, Kyunghee University**

In this study, we proposed importance of the body in dance via interpretation of interviews with highschool students majoring in dance. For this purpose, we made interpretations of recognition of the body for highschool students majoring in dance and discussed educational meaning of them. We chose three students who experienced diet and had the courage of expressing their opinions from WooRi arts high school in Seoul. They recognized their body in relation with other people and dance performance. We described this step as discovery and manifestation of the body. Desirable recognition of the body in dance education should recognize a body as a tool which expresses inner beauty. In the end, distinctive beauty of dance should be reviewed.

Keywords: Dance(무용), Body(몸), Recognition of the body(몸 인식), Dance education(무용교육), Case study(사례연구)